

'제18회 푸른꿈 맑은생각 표현전' 수상작 전시

1학생 1예술활동 발표 기회 제공

20일까지 전주교육문화회관 공감전시실서

이은재 학생 '역사 속에서 발견한 미래' 대상

'제18회 푸른꿈 맑은생각 표현전' 수상작 전시회가 16~20일까지 전주 교육문화회관 공감전시실(2층)에서 열린다.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예술 표현활동 확대와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푸른꿈 맑은생각 표현전을 개최해 대상 등 수상작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시화, 회화, 조소, 디자인·영상, 공예, 설치미술 부문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생 1,087명이 참여했다.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7

명, 우수상 12명, 특선 50명, 입선 100명 등 총 170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회화 부문에 출품한 이은재(전주근영중 1) 학생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미래'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우리 역사에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역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그려냄으로써 역사에 관심을 두고 꿈을 꾸는 학생들을 표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융합인재를 기르는 미래교육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1인 1예술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예



이은재 학생 작 '역사 속에서 발견한 미래'

술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과 따뜻한 인성을 심어주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거석 교육감이 전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거석 교육감, 전주제일고 방문 교직원들 격려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14일 전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한 이 학교 배대성 교사(교육부장관상)와 김은지 교사(교육감상)에게 표창을 수여하면서 "교육활동에 헌신한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회 중심으로 열린 스승의 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선생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케이크 커팅식 △선생님께 차와 디저트 대접하기 등 교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서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스마트기기 활용 교원 전문성 신장

유아교육진흥원, 공사립유치원 교원 대상 직무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오는 9월 31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도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82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활용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83개원이 참여한 직무연수는 올해는 215개원으로 대폭 늘었다. 수준별로 진행함으로써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이 기대된다.

이번 직무연수는 △멀티그리픽 만들기 △챗GPT 활용 △유아와 함께 캔바를 활용한 놀이도구 제작 △기본 동영상 만들기 △다양한 디지털 놀이 △구글 디지털 놀이 △코딩 놀이 △심화 동영상 만들기 △놀이도구 키오스크 만들기 △태블릿PC 활용하기 등 10개



과정을 기초·기본·심화 3단계로 세분화 해 교원들의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혜정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패 취약분야 심층진단 워크숍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문 퍼실리테이터 투입

학교운동부 등 9개 분야 문제점 찾고 개선책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 전북대학교 상과대학강의실에서 부패 취약분야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집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물품·용역계약, 학교급식, 공사 관리·감독, 인사, 예산집행, 조직문화 등 9개 부패 취약분야의 내·외부 이해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투입된 워크숍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으

로 진행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FGI)을 진행, 부패 취약 분야 원인분석 및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및 청렴 전북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울대 입학사정관 초청 고교 진학지도

전북자치도교육청, 내일까지

도내 18개 고교 교사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6~17일 참초내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사전 신청한 도내 18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학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초청해 고교별로 서울대 입학사정관과의 만남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을 점검하고, 서울대 전형 평가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방식과 효율적인 지원전략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식과 학생생활 과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교사 연수보다는 입학사정관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진학지도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유호선 중등교육과장은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학업태도 및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라며 "이는 정복교육청이 지향하는 미래교육과 일치하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진학지도 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43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4. 5. 14.(화) 15:0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선생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꽃을 피웁니다'라는 주제로 제43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이 열렸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꽃 피웁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 2층 강당에서 '선생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꽃을 피웁니다'라는 주제로 제43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 470명에게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로는 △근정포장 양미라 전주

공업고 교사 △대통령표창 문병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실장, 이현자 정읍동초병설유치원 교사, 한상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관 △국무총리표창 원영신 김제검산초 교사, 김경원 임실기림초 교사, 강영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표창 111명 △교육감표창 352명 등이다. /장은성 기자

이들은 수업혁신,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기초학력 향상,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등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서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보살펴 준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면서 "선생님에게 공지와 보람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대외협력

언론분야 자문교수 위촉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강태균·조숙진·채효씨와 임병식·전호성씨를 각각 대외협력분야와 언론분야 자문교수로 위촉하고 지난 14일 오전 대학본부 4층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강태균·조숙진·채효 자문교수는 대외협력분야로 임병식·전호성 자문교수는 언론분야로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들 중 조숙진 교수의 임기는 5월 13일부터 내년 5월 12일까지다.

대외협력분야 자문교수로 위촉된 강태균 교장은 군산대를 졸업하고 전북대 경영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충남 용감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조숙진 교수는 전주대를 졸업하고 동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후 현재 전주비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채효 전(군산시 공보담당관은 우석대를 졸업하고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홍보·공보계장을 거쳐 공보담당관으로 퇴직했다.

언론분야 자문교수로 위촉된 임병식 교수는 전북대를 졸업하고,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국회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호성 자문교수는 주(내일신문) 기자로 재직했으며, 교육부언론홍보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학의 전략적인 홍보 방향에 자문을 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대-캐나다 라발대학, 인공지능 분야 연구협력 강화

국제 인공지능 대전

현장서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연구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라발대학교(L'Université Laval)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의 최첨단 산학 연구기관인 '이바도(IVADO, Institut de valorisation des données)', '인스티튜트 쿠르투아(Institut Courtois)' 등과도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라발대학 및 몬트리올대학교와의 이번 협약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국제 인공지능 대전 AI Global Expansion Day' 행사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접목을 다양한 형태로 시도하고 있는 전북대가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으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국제 인공지능 대전 AI Global Expansion Day' 행사 현장에서 전북대학교와 캐나다 라발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로 기대된다.

양오봉 총장은 "캐나다 주요 대학과의 협력 성과는 전북대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통한 스마트 산업 협력 기반 마련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인

공지는 분야에 많은 투자를 쏟는 캐나다의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전북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